‘순례’가 된 사진, 108산사


낙산사 공중사리탑


봉정암 진신사리탑


증심사 대웅전


불국사의 가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장 최우성 사진집 발간
건축가·사진가·불자의 눈으로 본 산사
간월암, 낙산사 등 27곳 사진 300여 장 수록
총 4권 시리즈 출간 예정 중 그 첫번째
사라진 옛 불사 그리움으로 찾아나선 ‘여정’

한국 고찰의 아름다움을 40여 년간 사진으로 기록해 온 한국불교사진협회 최우성(효천 · 60)회장이 사진집 〈사진으로 본 한국의 108산사, 1권〉을 출간했다.

이번 책은 간월암, 낙산사 등 108산사 중 27곳의 사진 300여 장과 각 사찰의 역사가 수록된 것으로, 4권 예정 시리즈 중 ‘1권’이다.

최 작가는 전통건축을 전공한 인연으로 한국의 사찰 건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난 40여 년 간 전국의 고찰들을 사진으로 기록해왔다. 그가 오랜 동안 한국의 사찰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건축가로서, 사진가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 자체에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에서 오랜 세월 동안 힘들여 이룩했던 불사는 외세의 침략으로 여러 차례 소실되는 등 그 원형을 대부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배불정책으로 인해 도심지의 절들은 대부분 폐사되고, 산중의 절들도 그 명맥을 이어가기 힘겨웠습니다. 이제 시절이 바뀌어 배불의 시대는 지나갔지만 역사속의 찬란했던 불국토의 원형과 장엄하고 아름다웠던 건축 또한 볼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비록 옛 영화에는 견줄 바 못되지만, 현재의 모습이나마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우리시대 불교문화의 일부라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집은 만공선사의 발자국을 품은 간월암으로 시작된다. 관촉사, 낙산사로 이어져 마지막 가평 현등사까지, 사진들은 건축가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은 것은 건축가의 눈으로, 사진가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은 사진가의 눈으로, 그리고 불자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은 불자의 눈으로 기록한 사진들이다. 오로지 ‘건축의 미학’만으로 바라보기에 충분한 전각의 사진들과 노을과 단풍, 일출 속에 머문 가람과 석탑의 사진들, 그리고 부처님 얼굴에 쌓이는 햇살과 부도에 흐르는 선지까지. 각각의 사진들은 각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다. 사찰의 내력과 더불어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면 책은 한 편의 ‘순례’가 된다.

이번 책의 사진들은 한국불교사진협회 홈페이지와 신한국문화신문의 사진나들이 ‘사찰탐방’에 연재됐던 것으로, 지금은 볼 수 없는 그 시절의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사찰의 모습과 그 시절 우리 불교가 품었던 법향에 대한 그리움이다. 사진집의 볼륨에서 작가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작가는 한 권으로 끝낼 수가 없어 4권에 108산사를 담기로 했고, 우선 27곳의 사찰을 묶어 1권을 낸 것이다.

“108이라는 숫자는 중생계의 번뇌를 표현한 숫자로 그동안 답사한 절 가운데 역사의 향기가 불씬 배어있는 108곳의 절을 골랐습니다. 그러나 막상 책으로 엮으려 하니 유서 깊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절이 이외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절을 사진 몇 장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중단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108 산사를 골라 각 절의 사진 10여 장과 각 절의 내력을 적으려고 하니 1권의 책으로는 묶어내기에 너무나도 큰 분량이었습니다. 따라서 전 4권으로 회향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으로 본 한국의 108산사〉 2권이 기다려진다.

최우성 작가는?

한겨레건축사무소 대표로 한국 전통건축에 대한 일을 해오면서 40여 년 동안 전국의 사찰을 기록해 왔다.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으로 문화재실측설계, 불교사찰설계, 전통한옥신축설계 등의 일을 하고 있다. 포토클럽 회원전 3회,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전 8회와 개인전(2016년, 불국토를 꿈꾸며) 1회를 가졌다. 현재, 문화재 사진작가로 전국의 문화재현장을 찾아 사진으로 담는 작업과 불교 사진작가로 전국의 사찰 문화재 사진 작업을 하고 있으며, 신한국문화신문 사진부장으로 한국의 전통문화재, 명승지, 문화행사 등을 소개하고 있다.

불교음악원 ‘불교합창아카데미’ 1기 모집

2월 5일(월)~23일(금) 60명 모집

조계종 불교음악원(원장 박범훈)이 불교합창단의 정체성 확립과 보다 전문적인 합창교육을 목표로 ‘불교합창아카데미’를 개설한다.

불교합창에 관심 있는 스님과 불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시, 수료증이 수여되고 불교방송 및 불교행사에 출연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2월 5일(월)부터 2월 23일(금)까지이며 모집인원은 60 명이다.

박범훈 원장을 필두로 김성녀(국립창극단 예술감독) 유희성(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이 찬불가 교육을 담당한다. 율동에 필요한 무용은 국수호(디딤무용단 이사장)명인이 지도하고 전통불교음악의 핵심적인 창법을 이상균 교수(세한대학교 국악과)가 지도한다. 민요의 실체는 유지숙(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전수조교), 박애리(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 최수정(중요무형문화제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등의 명창이 지도하고, 신작 찬불가는 박범훈 원장과 김회경(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 등, 찬불가를 작곡한 작곡자가 직접 지도한다. 범패나 화청 등의 전통찬불가에 관심이 있는 수강생은 조계종 어장 인묵 스님과 화청은 선정 스님을 모셔 별도로 지도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및 불교음악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02-3218-4866 박재완 기자

만장(挽章)이 예술로

한국문화연구원 초대전 ‘아름다운 이별’展
한국문화연수원 교육동 갤러리서 4월 5일까지

망자의 명복을 기원하는 만장을 전시한다.

한국문화연수원(원장 재안)은 도곡서회와 함께 4월 5일까지 교육동 갤러리에서 만장을 전시하는 ‘아름다운 이별’전을 개최한다. 망자의 지인들이 망자를 기리며 적었던 만장을 주제로 자신의 삶과 주변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만들고자 기획됐다.


홍법선사 열반송

만(挽), 만(輓), 만사(輓詞) 라고도 불리는 만장은 망자(亡子)의 명복을 기리는 글을 적은 큰 천이나 종이를 기(旗)처럼 만든 것으로, 망자의 지인들이 만장을 들고 상여의 뒤를 따른다. 만장에는 죽은 이의 학덕, 선행, 문장, 함께했던 소회 등을 오언절구, 칠언율시 형태로 적고 있다.

본 전시회에서는 만장과 아울러 만장의 형식을 이용한 서예작품도 전시된다. 충신과 애국지사의 절명시, 나의 죽음을 가정하며 쓴 자만시, 문인의 절필시, 스님의 열반송 등이 전시 된다.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전통적인 한문 만장뿐 아니라 한글 만장도 만나볼 수 있다. 박재완 기자

새해에 만나는 천진불 동자승 사진전

동자스님 수행 달력 사진전이 열린다.

오랜 동안 동자승을 찍어온 현중 스님이 2018년 1월 17일(수)부터 23일(화)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연다.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개인전으로 동자승 사진으로 만든 신춘 달력을 전시한다. 전시에서는 동자승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담은 사진과 선묵화 그리고 현중 스님이 시인으로서 틈틈이 적어놓았던 시가 어우러진다. 개막식은 17일 오후 4시다.

문의-02-720-1161 박재완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조형물 · 동상 · 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0여분 전시중!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